

## 1964년의 담론 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김건우\*

1. 문제의 배경 -왜 1964년인가?
2. 1964년의 담론 투쟁 양상 -민족주의와 근대화론
3. 1964년의 문학에 대하여

### 국문요약

1964년은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에 입각한 공화당 정권과 민주주의, 진보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저항 집단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근대화론의 전유를 위해 치열한 담론 투쟁이 일어나던 해였다. 이에 따라 지식 담론 지형의 전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상계』가 변화하고 있었고, 진보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청맥』이 창간되어 지식사회에 파급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4년에도 『사상계』에는 과거와 같은 자유주의/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항담론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저항진영의 주된 논리는 민주주의로부터 민족주의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1964년을 전후하여 『사상계』 진영 역시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 투쟁에 참여하였다. 저항담론 진영의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혹은 반식민주의라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 사고되기도 했다. 『청맥』이 그러한 담론의 주된 매체였다.

1964년 문학 장에서는 1960년대 말의 순수참여 논쟁의 구도가 처음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지식인들 전반의 분열/분화와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었다. 또한 1964년은 김승옥이 『무진기행』을 창작하는 등 본격적 활동을 벌였던 해로, 김승옥으로 대표되는 4·19세대 문학의 등장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기능이 근대화 인텔리겐차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새로운 지식인’의 지적 토양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이 해는 문학 영역에서도 진보적 민족주의 진영이 형성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주제어: 1964년의 담론 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4·19세대, 문학)

\* 인하대학교

## 1. 문제의 배경 - 왜 1964년인가?

주지하다시피 반공주의 자체는 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에 이미 한 국사회에서 절대적인 ‘이념’이 되었다. 반공주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적 저항은 불가능했으며, 반정부 투쟁이나 저항 담론의 경우에도 반공을 표 방하고 공산주의외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4·19 직후 중립화통일론, 남북연방제론 등 다양한 통일론이 제기되었다 는 것은 역설적으로 1950년대의 반공주의가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 었음에도 전 사회에 전일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sup>

이와 달리 1960년대는 많은 논자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반공이 내면 화되던 시기였다. 1960년대에 와서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 한 규율권력으로 기능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에 각인되었다. 모든 말과 글, 행동에 대한 자기 검열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1961년 중앙정보 부의 설치와 ‘반공법’의 제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 의의 강고한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반공이 ‘국시의 제일의’(혁명공약 1항)가 되어있는 나라에서, ‘용공’이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권력 유지에 대단히 유용한 방식임에 분명했다. 반공주의의 네거티브한 정의는, 반공주의가 자체로는 완결된 이데올로기 가 될 수 없는, 억압과 금지를 행사하는 ‘힘’임을 가리킨다. 힘을 가진 자 에게 반공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당하는 자에게는 말그대로 폭력인 까닭 에 정면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64년의 시점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 식인 매체였던 『사상계』와 『청백』이 생산하던 담론도 ‘반공’ 자체를 직 접 건드릴 수는 없었다. 반대 입장이 정권에도 적용된다. 정권의 입장에 서도 민주주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었던 터라, 저항 세력이 구축하는

1) 정창현 「196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과 지식인층의 대북인식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229쪽.

민주-반민주 구도를 어떤 식으로든 와해시켜야만 했다.

이런 조건에서 양자간 초미의 관심사는 민족주의와 경제 근대화의 문제가 된다.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문제는 경제 근대화의 방향, 방식을 최대 관심사로 만들었으며, 1964년부터 본격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 투쟁은 새롭게 민족주의가 핵심 쟁점으로 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누가 전유하느냐의 문제가 양자간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배경에서 담론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구도였다.

특히 1964년의 담론 지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64년은 군정이 공화당 정권으로 옷을 갈아입은 첫해였다. 또한 이 해는 지식인사회에서 이념의 분화가 뚜렷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일회담 반대 국면과 이를 전후해 시작된 성장주의 정책에 대해 지식인들의 권력참여와 저항의 구도도 분명해지는 시기였다. 사실 1964년은 지식 담론 지형의 전반적 변화가 일어나던 해였다. 『사상계』가 변화하고 있었고,<sup>2)</sup> 진보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청맥』이 창간되어 지식사회에 파급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사상계』와 『청맥』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 담론 지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두 매체가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에 대항하는 저항담론 생산의 핵심축이었기 때문이다.

1965년 한국이 ‘도약단계’에 있다는 로스토우의 발언에 즈음하여,<sup>3)</sup> 박정희는 성장주의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개발독재가 좀더 명확해지는 것도 이때부터였다.<sup>4)</sup> 1964년에는 치열한 담론투쟁의 와중에 있었

2) 『사상계』의 변화는 1963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3월, 쿠데타세력이 군정연장 및 언론·출판에 대한 제한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사상계』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명한 반대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실화되는 근대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기존 『사상계』 지식인집단도 1964년을 전후해 분열되었다.

3) 1965년 5월 미국의 대통령 정책고문 로스토우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도약(이륙, take off)단계’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고,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도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요컨대 1964년 무렵은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에 입각한 공화당 정권과 민주주의, 진보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저항 집단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근대화론의 전유를 위해 치열한 담론 투쟁이 일어나던 해였다.

사실 1964년의 시점은 사회 각 부문의 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고, 따라서 지식담론 지형이 문학 및 문화생산의 직접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현상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담론 형성의 맥락에 있어 이 시기 정치·사회 담론과 문학·문화 담론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3장에서 살펴보고겠지만, 이 문제는 4·19세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문학구도가 성립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 2. 1964년의 담론 투쟁 양상 - 민족주의와 근대화론

통치체제의 물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권과 달리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과 외국자본 이외에도 담론 상의 주도권이 절실했다. 이데올로기는 가치 지향 체계인 까닭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가질 수 없는 반공주의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 반공주의를 민족주의, 성장주의와 결합시켰다. 이 결합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으며 60년대 말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서구의 것이며 따라서 반민족적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4)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호, 2003년 겨울, 327-329쪽

서구식 민주주의는 부정될 수 있으며 반공은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전쟁의 책임이 북에 있었으므로 민족을 분열시킨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의 가장 악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는 민족을 압살하는 ‘악마’였다.<sup>5)</sup> 요컨대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억압하는 무기로 민족주의(‘한국적 가치’)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화’와 ‘퇴폐문화 일소’의 논리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억압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의 지배논리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고 더불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개인주의(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를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민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는 논리의 구축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담론 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1960년경까지도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근대화론과 자유주의는 ‘한몸’으로 이해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근대화론과 자유주의를 결별하게 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정권의 ‘근대화론’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반공주의와 함께 성장주의는 박정희 정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문제가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였던 까닭에 저항담론을 가장 위협한 것은 반공주의와 더불어 성장주의였다. 황병주의 연구에 의하면, 1963년 11월 박정희의 연설에서 ‘조국 근대화’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이래 1964년에 이르러 연설을 통해 ‘근대화’와 ‘조국 근대화’가 50여 차례 사용되었다고 한다.<sup>6)</sup> 이 ‘조국 근대화’는 ‘민족중흥’과 함께 근대화(성장주의)와 민족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결합되었음을 가리키

5) 이봉범의 연구에 의하면, 1963-1965년에 걸쳐 간행된 전 6권의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비판 전서』(공산권문제연구소)에서 공산주의에 접근하는 구도가 과거의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부터 민족주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변모되고 있었다. 이런 구도는 1960년대 후반에 더욱 확장되어, 권력 및 이들과 결합된 반공이데올로기 집단에 의해 반공해석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졌다. 이봉범, 「검열의 내면화와 그 정치적 발현」, 『상허학보』 21집, 상허학회, 2007. 10, 144-147쪽

6)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한양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8, 103-105쪽

는 징표이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론’을 민주주의에 선행하는 성장주의의 형태로 전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주의와 반공주의를 지배논리로 결합시킨 정권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이 문제는 로스토우의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 근대화에 로스토우의 이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로스토우의 대외정책은 ‘근대화론’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근대화를 통해 일국 내부에서 공산주의혁명을 막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었다. 로스토우는 저개발국가의 일차적 과제를 경제성장으로 보고, 민주주의와 성장주의가 배치되는 경우 민주화를 경제성장 이후의 문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스토우는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성격과 역할에 주목했다. 제3세계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초래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국민통합의 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관점에서 제3세계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로스토우에 이르러 제3세계 민족주의는 미국 정책에 따라 미국에 적대적 개념이 될 수도, 반대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sup>7)</sup>

그렇지만 근대화론 자체는 순수하게 지배 이데올로기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 용어에 대한 담론 투쟁 역시 존재했다.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산업화로 규정했다면 이는 이전, 4·19를 전후한 시기의 ‘사상계’식 근대화 담론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상계」의 근대화론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문화적 선진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었다.<sup>8)</sup>

7)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호, 2004년 봄, 144-151쪽.

8)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54-78쪽.

원래 『사상계』의 전성기였던 4·19혁명 정세의 지식인 저항담론의 핵심은 정치적 근대화로서의 민주주의였다. 『사상계』는 반공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이승만 정권에 대항했다.<sup>9)</sup> 반공이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담론 진영의 무기가 된 것이다. 2차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들의 경우 독재와 같은 반민주적 요소가 공산주의의 침투를 용인하게 된다는 논리가 그 예가 된다.<sup>10)</sup> 따라서 독재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척결되어야 할 악이었던 것이다.

『사상계』의 경우, 1964년의 시점에 와서도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상계』의 핵심 필진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성식이 1964년 신년호에 기고한 글 「야당의 가는 길」을 살펴 보자. 김성식은 1950년대부터 이어진 『사상계』 이념의 방향에 따라 문제를 민주·독재의 구도로 바라보면서 정치의 ‘도덕성’을 문제삼는다. 김성식의 논조에서 지지대는 역시 ‘민주주의’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협잡 민주주의니, 우리에게 맞지 않는 주의니 하고 배격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급기야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미술적 신술어를 조작하기도 하였다”는 진단으로, 대선에서 박정희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의 전통적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사상계』의 전통에 따라 반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공을 하려면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버릇을 집어 치워야 하고 (중략)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와 민주사회를 건설할 양이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sup>11)</sup> 정신주의와 도덕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중의 벗’, ‘민중의 소리’와 같은 표현에서 민권주의의 전통도 이어지고 있다.

9) 1950년대는 물론이고 1960년대에 있어서도 반공이 곧 체제순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반공주의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까닭에 그 자체로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10) 이동욱, 「후진국에 있어서 관료부패의 원인」, 『사상계』, 1959년 11월호

11) 『사상계』 1964년 1월호, 33쪽.

『사상계』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항담론의 지지대로 고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견해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상계』 1964년 3월호의 건국대 교수 이방석의 글 「혁신정당의 수난과 갱생 - 보수반동 및 파시즘에 대결하는 민주세력의 형성」은 당시 민주주의 담론 진영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논조를 보여주는 글이다.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신념에 입각한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공화당 정권이 자칫 “네오 파시즘 세력의 권력지상의 정치집단으로 타락”하여 “매판적 자본가의 충실한 보초”가 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진적 혁신정당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혁신정당이란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의회적 방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철두철미 추구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요컨대 극우/극좌 노선을 배격하고 의회 민주주의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진보당 사건이 있는 지 불과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글 역시 “자유자본주의적 부르주아 독재체제를 배격함”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공산주의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서 반공주의를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자유당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한 반공주의에 대해 우회적이긴 하나 분명한 도전적 자세를 취한다. 자유당 말기의 진보당과 4·19 직후의 군소 혁신정당들이 전략 상 오류를 범하긴 하였어도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사회주의 노선은 온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반공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된다.

(이승만 정권의 -인용자) 보수독재 체제 하의 一人정치는 반공의 이름 아래 사회주의 타부와 혁신정당 타부를 형성케 하여 혁신정당의 결사를 사실상 불가능케 하였고 그러한 정치풍토의 인위적 조성은 민주주의적 혁신정당을 용공세력

으로 몰아칠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정당까지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한 것이다. (중략) (오늘날 공화당 정권이 -인용자) 단순히 개연적인 반공 국시를 빙자하여 민주주의적 혁신운동을 금압한다고 하면 이는 자유당 이정권 하의 독재정치의 역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밖에는 아닌 것이다.<sup>12)</sup>

이는 ‘반공’의 무차별적 외연 확장을 경계하고 반공주의의 금제하는 힘을 약화시키려는 논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반공주의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담론 진영 논리의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저항진영의 주된 논리는 민주주의로부터 민족주의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1964년의 시점에서 반공주의에 가장 ‘밀착하여’ 대항하는 담론은 민족주의였다. 1964년을 전후하여 『사상계』 진영 역시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 투쟁에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서구 민주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 원칙에 기반해 있던 입장에서 1964년을 지나면서 점차 진보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견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65년 5월호 차기벽의 「오용된 민족주의」는 이러한 지형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공화당이 대선 전략으로 내세운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인 까닭에 취해진 선거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비판으로 글을 시작된다. 차기벽은 1963년 대선의 이념구도를 민족주의(박정희) 대 민주주의(윤보선)로 정리하면서, 그 간 남한의 민족진영이 내세웠던 ‘민주주의’의 기치는 오늘날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했다. 대세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에 있으며, 이 민족주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저항 진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념의 미묘한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의 전유를 위한 치열한 담론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

12) 『사상계』 1964년 3월호, 95-98쪽.

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세는 민족주의로 옮겨가고 있었다. 저항담론 진영의 민족주의는 反 제국주의 혹은 反식민주의라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차원에서 사고되기도 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적’이었던 까닭에, 또한 ‘반공’은 이념의 논리를 떠나 ‘반북’ 자체였던 까닭에, 민족과 통일을 진보적으로 논하는 것은 반공주의에 도전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청맥』이 그러한 담론의 주된 매체였다. 『청맥』은 창간 당시부터 진보적 민족주의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었다. 『청맥』의 대표 김진환의 명의로 되어 있는(김종태가 썼다) 창간사에서부터 조국통일은 민족사의 지상 과제로 제시되었고, 1964년 8월 창간호 특집 「아아 이 민족 이 수난」, 11월호 특집 「남이 사는 내 나라」 등에서 반외세 민족주의 성향의 잡지이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청맥』 1964년 11월호, 조동필의 「냉전의 벽을 뚫어라」의 경우와 같이, 민족주의를 통해 반공주의를 우회적으로 돌파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조동필은 “민족은 하나라는 신념에서 그 냉전의 벽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후일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청맥』의 주간 김질락이 1964년 12월호에 기고한 「조국은 금치산자」는 1964년의 시점에서 반공주의 대응담론의 가장 높은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sup>13)</sup> 이 글은 ‘열강’(미제국주의)을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족주의가 제국의 식민주의에 대립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통일을 주창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용공분자로 수난당하고 통일론이 용공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비판된다. “이 나라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반공을 그들만의 전매특허인 양 소리높

13) 이 글에서는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진다. “자유는 이제금 새로운 제국주의의 진열장에 나열된 마네킹의 역할밖엔 하지 못했다.” 『청맥』 1964년 12월호, 33쪽

이 외치고 통일론이 대두될 때마다 소아병같은 발작을 일으킨다는 진술은 이 시기 담론 지형에서 반공주의에 직접 맞대응하는 매우 드문 경우를 보여준다.<sup>14)</sup>

그렇지만 김질락의 글과 같이 진보적 민족주의만으로 아무런 매개없이 반공주의에 맞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근대화의 문제였고, 따라서 근대화론을 둘러싼 담론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맥』 창간 당시부터 분명히 의식되고 있었다. 『청맥』 1964년 8월호의 창간사에서 통일은 “빈곤과 후진성을 축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으로 제시된다. 이는 당대 담론 지형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이 후일 통혁당 위원장으로 밝혀졌던 김종태의 전략적 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대화 담론은 반드시 거론해야 할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화’를 전유하기 위한 담론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청맥』 1964년 11월호의 권두언에서는 근대화의 과제 달성이 통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분명히 제시된다. 민족통일론이 죄악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가운데 “우리의 빈곤과 후진성을 초극하는 첩경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앞서 민족통일 5개년계획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화당 정권의 성장주의에 대해 매우 도전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1964년 12월호의 권두언에서는 통일의 과제가 보다 분명히 빈곤의 해결 문제와 연관, 제시된다. “미국인들조차 공산국가와 상거래를 해야 한다고 떠드는 판국에 어찌 우리만이 남의 눈치만 살피며 굽어아한단 말인가?”라는 진술에서 통일은 조국의 경제적 근대화의 방안이 된다.

『청맥』의 핵심필진 중 하나인 이재학의 1964년 12월호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글이다. 먼저 그는 세계

14) 『청맥』 1964년 12월호, 31-32쪽

정세가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 해 10월의 카이로비동맹국가회의의 결과를 전한다. 이 글은 “생산수단의 독점형태가 빚어내는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보수세력의 집요한 반항은 역사발전의 속도를 제동하고 있다”<sup>15)</sup>는 등 맑스주의 분석틀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극우/극좌 노선에 대한 비판 논조를 펼친다. 이 글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같은 호 권두언과 같이 통일과 근대화의 문제를 함께 사유한다는 데 있다. “통일은 한국 근대화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터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sup>16)</sup>라는 진술은 통일을 근대화의 핵심문제로 사유하면서 금기인 반공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해 박정희의 연설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조국 근대화’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전유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17)</sup>

요컨대 이 시기 공화당 정권의 이데올로그들과 저항진영 사이에는 근대화론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으며, 한편 저항담론 내부에서는 공화당 정권의 반공주의/성장주의에 대항하는 담론의 주류가 민주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1964년은 그 결절점에 해당하는 해였다.

---

15) 『청맥』 1964년 12월호, 39쪽

16) 『청맥』 1964년 12월호, 43쪽

17) 민족주의와 근대화론의 접합은 이 호의 다른 글에서도 나타난다. 임희섭은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화인가」에서, 한국 근대화가 미국의 방침에 영향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근대화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를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일변도의 근대화 관념이 매편성과 종속성을 고질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서구화가 아닌 주체적 근대화의 단초를 ‘민중의 생활사’로부터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청맥』 1964년 12월호, 146-151쪽

### 3. 1964년의 문학에 대하여

매체를 통해 치열한 담론 투쟁이 벌어지고 있던 1964년, 문학 담론의 영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가를 살펴 보자. 『사상계』의 대표필진의 한 사람이었던 김진만(고대 영문과 교수)의 글은 지식인과 문단을 함께 운위하고 있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이 글은, 지식인 집단 일부가 박정희 정권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는 가운데 오늘날 진정한 지식인의 사회참여란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영문학자였던 그는 당대 문단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서정과 과거에 대한 慕情으로 끝나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와 소설마저 지루하게 느껴지는 처지에서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의식이 무엇보다도 아쉽다.”<sup>18)</sup>

사실 이는 당시 지식인 사회의 이념 분열이 가속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진술이다. 그런데 핵심은 문학담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었다. 4·19 전후까지도 김진만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김봉구의 1964년 입장은 그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사상계』 1964년 8월호의 「작가와 증언」에서 김봉구는 4·19 시기 자신이 가졌던 ‘양가주망’에 대한 견해를 버리고 순수예술론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다. 문학의 ‘양가주망’이 1964년에 와서는 공화당 정권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1960년대 후반의 순수·참여 논쟁이 구도 상으로 1964년을 전후해 처음 성립되었다는 것,<sup>19)</sup> 다시 말해서 이후 순수·참여 논쟁에서 등장하게 될 각각의 입장이 이미 1964년에 지식인 집단의 분열, 분화와 궤를

18) 김진만 「지식인의 사회의식」, 『사상계』 1965년 5월호, 74-83쪽

19) 1950년대 말에서 4·19를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문학의 사회참여 논쟁은 이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같이 하여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비평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1964년경의 창작계 동향은 어떠한가? 1964년은, 1950년대 『사상계』 이데올로그(반공 근대화론자)의 하나였던 선우휘가 ‘패배주의’로 빠져들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1965년 7월에 발표된 그의 「십자가 없는 골고다」는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근대화 ‘주체’로서의 지식인의 힘이 사라지고 있음을 정확히 보았던 선우휘는, ‘비판자’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회의하는 태도를 이 소설에서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서 K. 김과 동료 기자들이 내기를 하는 대상인 ‘S월간지의 H옹의 글’이란, 『사상계』 1965년 5월호에 실린 함석헌의 「세 번째 국민에게 부르짖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우휘는 함석헌이 이 글로 인해 필화를 겪지 않았다는 데에서 역설적으로 인텔리겐차의 몰락을 읽어냈다. 그렇지만 선우휘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식인의 역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었다.<sup>20)</sup>

그 다른 ‘지식인의 역할’이란 무엇이었을까? 1964년은 또한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사상계』에 발표되던 해이기도 했다. 이 시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에서 간과된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좀더 가까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현일은 김승옥의 60년대 문학을 자유주의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김승옥 소설에서 표현되는 정치성의 핵심에 자유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sup>21)</sup> 그 간 김승옥의 소설들을 개인주의와 연관시키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 정치적·미학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가 김승옥 소설의 배면에 있는 정치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승옥 문학

20) 선우휘 역시 1968년에 가면 김봉구처럼 문학의 참여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백낙청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21) 조현일, 「자유주의와 우울 - 김승옥론」, 『민족문학사연구』 3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6, 291쪽

의 자유주의는 언제, 어디에서 연원한 것일까?

김승옥, 이청준, 김현, 김병익 등 4·19세대 문인들은 자신들이 10대 후반이었던 1950년대 중후반에, 『사상계』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민주주의 담론, 그리고 문학계를 휩쓸었던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고 더하여 외국 문학을 섭렵한 사람들이었다. 1950년대에 실존주의는 당시 10대였던 4·19세대 문인들의 의식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sup>22)</sup> 그런데, 작가들 스스로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이해했던 그것이 실은 이후 국가권력의 반대편에 놓이게 될 자유주의 지식인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경우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미적 저항으로서 실존주의가 유의미한 지점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미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저항의 지점에 자유주의가 놓였다는 것이다. ‘실존’이 그것을 매개했다. 이 작가들이 지식인의 내성(內省)에 집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던”<sup>23)</sup> 것은, 한국 자유주의 문학이 1963-64년에 와서 근대화 인텔리겐치아의 그것이 아닌, 사회 권력의 장 주변부에 놓이게 된 ‘새로운 지식인’들의 목소리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김주연이 「새 시대 문학의 성립」에서 새 세대 작가들의 주인공들을 모두 ‘소시민으로서의 개인들’이라고 불렀을 때, 김주연의 의도를 떠나 이 ‘소시민’이란 결국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새로운 지식인’으로서의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김승옥의 「생명연습」을 “더 작은 단위-한 개인이라는 단위로 옮겨가는 과정”<sup>24)</sup>이라고 읽었을 때 김주연도 대략이나마 그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1964년을 전후한 김승옥의 초기 소설들은 한국에서 근대화 인

22) 실존주의가 4·19세대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173-175쪽 참고

23)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45쪽

24)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17쪽

텔리겐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 출현하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김승옥의 문학에서 1964년의 담론 지형의 직접적 흔적을 읽을 수 없다는 것과, 김승옥의 문학이 1964년의 담론 지형과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김주연이 보고 싶어했듯 김승옥의 문학에서 정치성이 배제된다고 하여도, 김승옥 문학은 1950년대의 지적 토양이었던 자유주의가 1964년의 시점에 와 문학에서 꽃을 피운 것이며, 자유주의가 내면화된 형태로 새로운 지식인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증좌에 해당하는 것이다.

백낙청은 이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1960년대 말 그의 「시민문학론」에서 1964년을 전후한 문학 정황에 대해 백낙청이 가지고 있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에서 이른바 ‘소시민의식’의 등장을 “4·19정신의 위축과 변질”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소시민의식’을 새로운 세대의 역사의식이라고 보는 김주연의 생각 자체가 이미 시민의식과 4·19정신의 퇴조 현상의 일부라고 말했다.<sup>25)</sup> 아울러 ‘시민다운 시민’이란 민주시민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이란 “우리가 쟁취하고 창조하여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이라고 했다.<sup>26)</sup>

백낙청이, 김승옥으로 대표되고 김주연에 의해 변호되었던 ‘새로운 세대의 문학’을 온당하게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사실 백낙청은 ‘소시민’의 문제를 넘어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등장과 한국 상황에서의 그들의 역할이라는 더 큰 문제를 보아야 했다. 어떤 각도에서 보자면 이들 새로운 지식인들은, 백낙청이 「시민문학론」에서 본 김수영과 크게 다른 존재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라져가는 근대화 인텔리겐차의 하나였던 선우휘나, 시민/소시민의 도식을 통해 역사를 당위의 전망으로 보고자 했던 백낙청 모두가 한국 지식사의 새로운 국면을 큰 시각으로 포착하고 있지는 못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백낙청은 이후 진보적 민족주의

25)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92, 58쪽

26)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92, 14쪽

가 가장 지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한 전범을 보여주게 된다.

요컨대 1960년대 문학의 자유주의는 그 기원에 있어 1950년대 지식 담론으로부터 자양분을 제공받은 것이면서, 한국의 자유주의가 부르주아 사회를 성립시키는 구성적 토대로서가 아니라 제3세계 근대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치적 전횡에 대한 대립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1964년의 시점은 지식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3세계 진보적 민족주의, 그리고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공존하고 있던 때였다. 반공과 근대화를 전유했던 국가 권력에 대한 대립물로서 자유주의와 진보적 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면서도 함께 자리했던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4년의 지식 담론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자유주의는 뒤로 물러서고 진보적 민족주의가 주된 저항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천부인권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계약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라는 자유주의(개인주의) 이념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사상계」 이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1964년 전후의 담론 지형에서는 표면에 떠오르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만큼 ‘민족’과 ‘근대화’를 둘러싼 전유 투쟁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1950년대 그들이 키운 ‘새 세대’가 이제 문학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었다. 1964년경의 일이었다.

또한 이 해는 진보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남정현이 이슬이슬한 수위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었던 때이며, 창비를 준비하고 있던 백낙청이 그런 남정현을 주목하고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이후 문학사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될 이들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사상계』.

『청맥』.

김주연,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92.

### 2. 논문과 단행본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167-192쪽.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호, 2004. 봄, 136-166쪽.

이봉범, 「검열의 내면화와 그 정치적 발현」, 『상허학보』 21집, 상허학회, 2007. 10, 141-175쪽.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호, 2003. 겨울, 301-336쪽.

정창현, 「196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과 지식인층의 대북인식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조현일, 「자유주의와 우울 -김승옥론」, 『민족문학사연구』 3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6, 288-318쪽.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한양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8.

## Abstract

The Discourse Topography of 1964 :  
Anti-Communism, Nationalism, Democracy, Liberalism, and Developmentism

Kim, Kun-Woo

1964 was the year when the discourse struggle to monopolize the causes of nationalism and modernization broke out between the Republican Party based on Anti-Communism & Developmentism and dissident groups based on democracy & progressive nationalism. As a result, the discourse topography was overall being changed. *Sa-sang-gye* was changing, and *Cheong-Maek* based on progressive nationalism was founded and began to have influence on intellectual society.

Although, as late as in 1964, counter-discourses based on liberalism /democracy appeared in *Sa-sang-gye*, dissident groups' main thesis was shifted from democracy to nationalism. Around 1964, *Sa-sang-gye* camp took part in discourse struggle surrounding nationalism. And it also was the case that counter-discourse groups' nationalism was thought as anti-imperialism/anti-colonialism linked with national liberation campaign. *Cheong-Maek* was the main medium of that kind of discourse.

Meanwhile, the sprout of the debate between engagement literature and pure literature first appeared in literary field of 1964, which was the phenomenon parallel to the differentiation of intellectuals. It was the year when Kim Seung-Ok seriously started his career as a writer writing *Mujin-Gibaeng*, and it can be argued that the advent of 4·19 generation writers represented by Kim Seung-Ok proved that the role of liberalism in Korea was changed from ideology of pro-modernization intelligentsia to

intellectual soil of 'new intellectuals'. And it was also the year when progressive nationalist camp was formed in literary domain. (Key words : The Discourse Topography of 1964, Anti-Communism, Nationalism, Democracy, Liberalism, Developmentism, 4·19 generation, literature)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8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